

2003년 시멘트 수급 전망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1. 2002년 시멘트 수급 동향

지난 2001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시멘트 수요는 2002년에도 가속도가 붙어 1~9월중에 생산은 6.9%, 출하는 11.4%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는 국지적으로 시멘트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2002년 중에 시멘트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민간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황을 바탕으로 대형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이 늘어났고, 저금리의 영향을 받아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의 신축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시설의 증·개축, 상가 건축의 증가 등도 시멘트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멘트의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출하량을 보면, 2002년 1~9월중 전국적으로 9,418만㎥를 출하하여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5%가 증가하였다. 특히, 성수기에는 월평균 출하량이 1,300만㎥에 달하여 최고의 수요 피크점이었던 1997년의 수준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레미콘 출하량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추세 분석을 해보면, 레미콘 수요는 1999년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2년 상반기에는 1997년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3년 건설경제 전망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2003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5%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소비 부문은 가계부채의 확대,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도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 부문의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전년 대비 1% 내외 감소한 76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주택 수주의 감소로 인해 8.8% 내외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6.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토목 수주는 금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 수주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 수주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2003년도 SOC 예산이 전년대비 4.8%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재해방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위축시 새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 부문은 민간의 경기 부진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 가능성,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 가계신용 악화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거용 건축은 최근 1~2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던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이 침체기로 접어들 전망이며, 나아가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파급 효과, 재건축 요건 강화, 부동산경기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온 비주거용 건축 수주도 지난 2년간의 공급 물량 확대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2003년 시멘트 수급 전망

2003년의 시멘트 수요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해 있다. 우선,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003년도에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건설투자도 이와같이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2003년의 시멘트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건설도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수요는 2002년보다 오히려 감소할 우려도 있다.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건축허가면적은 2002년 3~6월에는 1,300만㎡를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7월 이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1,000만㎡ 이하로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허가면적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 2002년 1~9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대비 48.5%가 증가하였다. 이는 IMF 체제 이전이 1997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이다.

용도별로 볼 때 주거용은 최근들어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상업용이나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는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업용 건축허가는 2001년에 37.1%가 증가한데 이어 2002년 1~9월중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는 2003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2002년도 정부의 SOC예산이 전년대비 4.8% 증액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는 2002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들

어서면서 시멘트 수요가 급격히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건축허가면적이나 건설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선행 지표로 판단할 때, 2003년 상반기에는 시멘트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경기의 둔화 등에 영향을 받아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해 복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수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과 같은 평면적인 분석 이외에 2003년에는 시멘트의 수요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다양한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등과 같이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거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반발할 경우에는 민간 부분의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2003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멘트 수요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침체시켜 주택이나 상가 건축경기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2002년에 부각되었던 골재의 수급 문제가 심화될 경우, 시멘트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착공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착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높다. 이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시멘트 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외생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멘트 수요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